



e-mail. holyflameministries@yahoo.com office. 778-394-4777 cell. 604-825-0077

www.holyflameministries.com

6월의 홀리 플레임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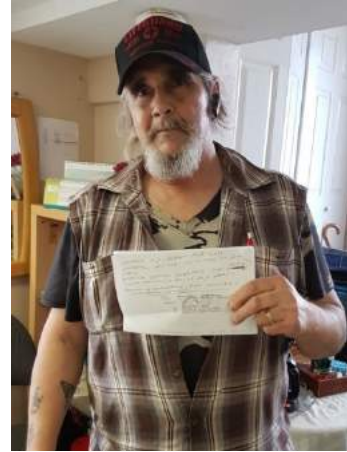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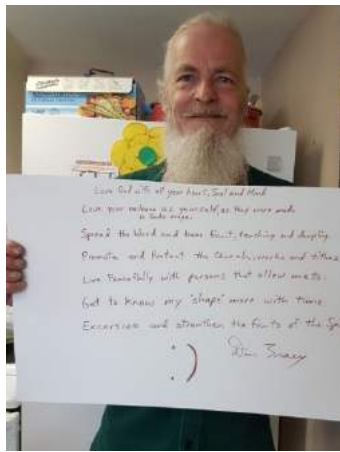
6월의 색색의 바람이 알길없는 성령의 바람처럼 그렇게 불어오고 또 스쳐갑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영광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셔도 아니고, 매일의 우리의 삶속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도 아닌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충분한 이유에서임을 감사드리며 6월 소식 나눕니다.

주님 사랑해요!

♥ 2016년부터 시작된 목요 성경공부 그룹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교제를 끝낸 마지막 수업날, 각자의 마음을 주께 고백한 종이글을 들고 사진을 찍었네요.

저희 목요 성경그룹반엔 오피스 근처에 사는 몇몇 형제 자매들이 참석합니다. 몇몇 형제는 거리의 생활과 마약, 교도소 경험이 있지요. 어느날 주님을 만난후 저들은 교회 예배도, 성경공부도, 기도모임도 나가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 과정가운데도 성품과 인격의 훈련, 삶을 향한 태도, 과거로부터의 단절등 주님을 닮아가기까지의 쉽지 않은 여정길을 견고 있는 데요. 여러 부딪힘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구요. 목요팀중 한형제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몸의 질고로 성경공부에 참석은 안하고 있으나 문자로 교제도 하고, 꽃을 전달하기도 하며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 형제는 발렌티어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격이 불같이 급한 그 형제와 어느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나도 내 성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분명한것은...주님을 알고나서 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투박한 형제의 말투속에 흘러나온 몇몇 단어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만 한 진실이 담겨있음을 알수 있었지요. 참사랑은 우리의 내면도 삶도 변화시키고... 점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여정길에 찬양으로 여러 섬김과 인도로 함께 해 주신 두분의 사역자, 왕전도사님과 이사모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살전2:8)



★ 기도와 초청 ★

- ▶ 홀리플레이م 교도소 사역에 증보기도자들이 세워 지며 함께 걸어갈 지체들의 동행이 이어 지도록...
- ▶ 가석방자의 집과 여자 연방교도소에서의 스물그룹 성경공부와 예배, 하프웨이 소망스쿨 을 위해 모든 과정이 잘 준비되어 지고, 이 모든 과정속에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 복입기를...
- ▶ 가석방자의 집에 자매들과의 데이타임 수련회(7월)를 준비하는 과정가운데 섬김의 손길 이 이어지도록...
- ▶ 홀리플레이م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공동체 자유공간 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6:2)

희망의 행진을 축복해요!

♥ 수감자였던 캔디스의 미용학교행진... 싸워내야하는 재정과 커뮤니티의 직업 오픈 및 여 러 상황들이 있지만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것은 하나님의 은총... 늘 그 은총아 래 머물도록 축복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 최근에 교도소에 가서 한 자매님을 만났지요. 가석방자의 집에 있다가 다시 교도소로 보 내진 자매... 그녀는 눈물을 흘리네요. 함께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돌아오는 길에 자매 의 눈물을 기억해봅니다. 마음대로 결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신 육신의 연약함에 낙망과 후회를 하며 그래도 다시 결심하는 자매... 이 자매와의 대화 가운데서 마치 우리 자신의 일 부가 된것처럼 딱 붙어있는 과거의 어두운 딱지들을 보게 됩니다. 찰싹 들러붙어 있는 어두

운 딱지들을 영혼으로부터 떼내어야만 자유케 되고 한걸음 한걸음 희망속을 걸을수 있는 것 인지, 참 희망이 정말 깊이 영혼안으로 들어와야만 딱지가 떼어질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되지요,. 희망이 와야만 딱지를 떼어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고, 떼어내야만 희망이 일을 시작하는 관계... 그 관계를 완전케 하는 능력은 역시 사랑이 아닐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동행하는 수감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